

에어쇼 항공기 블랙이글 추락원인은 '엔진정지'

지난 달 5일 발생한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소속 A-37B 항공기 추락 사고는 '엔진정지'가 원인이었다고 조사됐다. 공군은 현장에서 촬영한 비디오 영상·관제탑 통화기록·항공기 기체·엔진 잔해·항공기에 장착된 GPS 자료 등을 토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은 추락한 고(故) 김도현 소령이 조종하던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와 정면으로 교차한 뒤 왼쪽으로 도는 횡전(橫轉-roll)을 하는 '어포핑 A-roll'(Opping A-Roll)을 실시하던 중 왼쪽 엔진이 정지되는 이른바 '엔진 압축기 실속'(Compressor Stall) 상태가 되면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엔진 압축기 실속'이란 제트엔진 내에 분사되는 연료량과 흡입되는 공기량의 비율이 맞지 않아 엔진이 일시 정지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 기종에서 발생 가능하며, 고도가 충분할 경우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나 추락 항공기는 330m 저고도 비행 중이어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박준홍 공군 작전사령부 안전관리과장은 "최신예기는 엔진 압축기 실속시 이를 자동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돼 있지만 사고기종은 재래식이라서 이런 장치가 없다"며 "장치가 없더라도 수평 또는 고고도 비행시 수동조작으로 정상기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군은 조종사인 김 소령 사체의 왼손이 항공기 가속 및 감속 시 사용되는 엔진 출력조절 레버인 스로틀(throttle)을, 오른손은 조종간을 각각 잡고 있었다며 "김 소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항공기 통제와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전·현직 여수시의원 10명 경찰, 금품제공 혐의 수사

여수경찰은 5일 금품제공 혐의가 있는 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 K씨 등 전·현직 시의원 10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의원 등은 지난 2월16일 민주당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무현 정권 규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는 과정에서 관공버스 이용비로 40만원씩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1차 조사에서는 당시 상경한 120여명의 당원들로부터 경비를 모금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천에서 탈락한 2명의 의원이 뒤늦게 혐의를 시인했다"며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집회에 참석한 시의원 10명 가운데 6명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수험생들 "월드컵을 어찌 할꼬"

거리응원 "대~한민국" 외치고 싶지만 시험이 '코 앞'... 리듬 흐트러질까 걱정



전남대 고시원인 '프라임홀'(Prime Hall). 사시·행시·CPA 수험생들이 5일 시험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전대·조대 고시원 20일부터 2차 시험 TV·PC시청 '엄금'

TV·PC시청 '엄금'

전남대 고시원인 '프라임홀'(Prime Hall)에는 201명의 사시·행시·CPA 준비생 중 20명이 2차 시험을 치른다. 이들은 한때 '월드컵이나 공부냐'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대부분 '공부'를 선택했다. 경기가 새벽에 열리는 탓에 자칫했다간 리듬을 잃어버리고, 시험 당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시원 측도 수험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월드컵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마무리를 잘하자'고 격려하고 있다. 또 다른 수험생들이 고시원 내에서 월드컵을 시청하는 것을 '엄금'할 계획이다. 정히 월드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보고 들어오라고 권하고 있다. 전남대 고시원 민병로 주임교수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남학생들의 고시원 합격률이 평균 10% 가까이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며 "수험생들이 '인내'를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선대 고시원인 '황금추관'(黃金秋館)은 컴퓨터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경기를 보는 것은 허용할 계획이었다.



한일 월드컵 때 광주 금남로의 거리응원. 대입수능을 5개월 앞둔 광주·전남 고등학교는 월드컵 기간 면학 분위기가 저하로 성적이 크게 떨어졌던 2002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묘안 찾기에 나섰다. /광주일보기자

수험생 44명이 모두 독방을 쓰고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PA 2차 시험을 볼 2명이 최근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 중이다. 고시원 측은 또 경기 당일 캠퍼스 내 노천극장에서 대규모 야외 응원이 열릴 것으로 예상, 수험생들의 공부 방해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 2001년 사시 2차에 7명이 합격했으나, 한일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엔 합격자가 1명에 그쳤다. 조대 고시원의 노모(33·사시 1차 준비)씨는 "월드컵 기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어 봐야 공부하기도 힘들 것 같다"면서 "2차 시험을 앞둔 다른 수험생들 위해 필름방이나 길거리 응원장 등에서 월드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앞둔 고3 교실=광주·전남 지역 고등학교는 진학 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2007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불과 5개월 남짓 앞두고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월드컵 경기가 열리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지난 2002월드컵 당시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져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이어졌던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음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2002월드컵 직후에 치러진 2002년 9월 모의수능시험 성적은 난이도가 비슷했던 2001년 수능에 비해 인문계열은 4.5점, 자연계열은 6.1점, 예체능계열은 6.3점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50% 학생들의 경우 15점까지 떨어졌다. 각급 학교는 면학 분위기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묘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 D여고는 5일 기획회의시간 때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13일 첫 경기인 토고전이 밤 10시에 열리는 것을 감

수능 앞둔 고3 교실 주요 장면만 녹화 점심시간에 방영

안, 1·2학년 학생만 1~2시간 빨리 귀가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벽 4시에 열리는 프랑스전(19일)과 스위스전(24일)은 녹화해 점심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주요 장면만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학생들이 들뜨게 되고 결국 학교 전체 면학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해당일 직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M고는 1·2학년에 대해서만 조기 귀가 및 주요 장면 방영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각 반에서 적게는 4~5명, 많게는 6~7명만이 월드컵 경기를 보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광주고와 금호고는 3학년 학생들이 자제력을 갖고 눈앞에 놓인 수능시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장면을 녹화해 보여주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광주고 관계자는 "학교에서 내놓은 대책이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먹혀들지 걱정이다"며 "솔직히 묘안이 없이 고민만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나원침 (6847)



연예2차(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부(총 353명 353부) 문의 (062)366-4220

천연기념물 원앙 인공번식 성공

○군산시 금강 철새조방대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사진) 3마리의 인공번식에 성공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인공번식에 성공한 새끼 원앙의 어미는 2004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 금강 철새조방대 내 조류공원에서 사육했으나, 2년 간 계속 무정란(수정되지 않아 부화할 수 없는 알)만 낳아오다 최근 처음으로 8개의 유정란을 낳았다고. ○새끼 원앙은 현재 부화장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3~4주 후에 어미와 동료가 있는 물새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경산강남교사, 영남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하고 심도있는 학습과정을 제공하고 철저한 학습관리 시스템을 갖춘 학습부흥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비로써 최고의 강사진이 전문교육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꼭내영고시학원의 교수진은 하루, 이틀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과 입문원 최고 강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누구든 꼭내영고시학원을 선택하십시오. "합격,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여야 해"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 교육학/과내영 선생
- ▶ 수학/임대영 교수
- ▶ 생활/김치옥 교수
- ▶ 체육/김영희/김용호 교수
- ▶ 유아교육과정/염미선 선생
- ▶ 국어/최병해 교수
- ▶ 과학교육론/정영민 교수
- ▶ 지구과학/박영순 교수
-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 ▶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 ▶ 물리/정영민 교수
-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 미술/김성희 교수
- ▶ 영어/송옥 교수
- ▶ 화학/이영철 교수
-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 음악/박성선 교수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2007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어름방학 문제풀이 대특강

2006년 임용고시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교수진!!

교육학	국어	영어
유길준 교수(재) 7월 9일(일) 10:00~19:00	유광재 교수(재) 7월 8일(토) 10:00~18:00	이현 교수(재) 7월 6일(화) 10:00~17:00

경찰직, 검찰직, 교정직공채 준비생 절호의 기회!!

법무부교정직특채 1,003여명 확정!!

2주완성 첫진도 개강 **이론반 6월 21일** **문풀반 6월 1일** **목요일**

합격개강: 주말반 5월 20일!!!

형소법(주남궁선생님) 토요일 17:00~20:50(4시간)
교정학(김용철선생님) 일요일 09:00~12:00(3시간)

기존 무등이론반 수험생들은 주말반 문제풀이(토요일)가 무료입니다.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Heat Well 순간가열식 전기보일러

"에너지혁명" 50%절감 Heat Well 로 연료비걱정 NO!!

구분	kcal	도시가스	전기난방	종류
소비자지급	64.99원/h	508원/h	64.99원/h/h	920원/h
연료비비율	8%/h	1.1%/h	110%/h	1.4%/h
비율	100%	108%	137%	249%
2006년 연비	155,760원/월	167,640원/월	214,170원/월	366,400원/월
사용기간	1월 10시간	1월 10시간	1월 10시간	1월 10시간

www.sysworks.co.kr 삼우상사 062-228-4242, 232-6262, 524-6262

현대교원임용고시학원

www.hgosi.net

직업교육론	간호학	유아교육	초등교육
류호정 교수(재) 7월 8일(토) 13:00~19:00	신희원 교수(재) 7월 7일(금) 10:00~17:00	박수정 교수(재) 7월 4일(화) 15:00~21:00	배제민 교수(재) 7월 8일(토) 13:00~19:00

선생님을 향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전남대고 앞 222-6790

hanbitgosi.co.kr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7·9급 공무원 대개강

개강: 6월 1일 전문학원!! 전문강사진의 명쾌한 강의만이 당신의 합격을 앞당깁니다.

한빛공무원학원

전남대 후문앞 (서울고시학원 바로 앞) ☎ 234-0234